☞ 17면에서 계속

# 믿음의 끈 놓지말고 한번 더 관하세요



그림 · 최주현

시키는 거라구요. 그러기 위해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 상황에 부딪쳤을 때에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겁니다.

색(色)으로만 생각하고 사량으로 생각한다면 당장 죽겠으니까 내가 어떡하든지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런데 그건 소용없는 겁니다. 내 주인은 어떻게 빠져나가나 그걸 보느라고 벌써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량으로 빠져나가려면 저 창문이 문인 줄 알고 그냥 나가려고 애를 쓰는 벌이나 같은 형국이거든요.

그렇게 급박할 때 모든 걸 다 맡겨 놓는, 그것이 바로 내 대로를, 벽도 없고 봇장도 없이 그냥 확 뚫어 버리는 그러한 공부를 하는 과정이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생활이 가난하지도 않고 몸도 건강하고, 친구들도 많고, 자기가 살아가는데 있어 모든 게 풍족한 사람들은 답답한 일이 당장 눈앞에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 주인공을 찾고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 앞에는 아예 그냥 죠아서 꼼짝못하게 만들어 놓는 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홀랑 껍데기를 벗고서 우주 바깥을 벗어나가나,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를 쓰고 그 껍데기를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나 그걸 보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니 참 묘한 이 이치를 내 생활에서 그대로 재료로 알고 맛을 보고 가는 계기로 삼으신다면 크게 쉬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정말 믿음의 끈을 놓치지 말고 한 번 더 크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마음으로 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모 형제간에 섭섭한 일

**문** 저희 집의 부모 형제간에 섭섭한 일이 있어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저희 가족은 남달리 우애가 깊은 편인데 사소한 일이 생겨 평소에 제가 좋아하던 언니와 엄마께 섭섭한 마음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으려, 주인공을 의지하려 애를 써보아도 섭섭한 마음이 항상 듭니다.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오히려 남 같으면 잊어버릴 수 있을 텐데 각별한 부모 형제지간이라 좀체 지워버려지지가 않습니다. 저한테 마음을 깨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 가족으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그건 피치 못할 일이지요. 전자에 인연이 있으니까 만난 인연들이거든요. 그건 뭐냐하면, 인연이 있고 없고 간에 차원대로 만나는 인연이니까, 예를 들어서 금차원이라면 금끼리 모이게 돼있고 무쇠차원이라면 무쇠들끼리 모여서 살게 마련이거든요. 한가족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인연을 말하지만 모두가 줄줄이 매달려서 돌아갑니다. 인연이 없다고 한다면 독불장군도 있으련만 인연에 따라서 모두 공생을 하면서 공용하면서 공체로서 공식화하고 돌아가니까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서 나쁜 인연을 짓기도 하고 좋은 인연을 짓기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뭐가 잘못되면 부모의 탓을 하고 조상의 탓을 합니다.

그런데 각자, 가족에 대해서 상대방의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각기 자기 탓을 해야죠. 자기가 그 자리에, 같은 차원에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잘했든 못했든 내가 있으니까 상대가 있는 거지, 내가 없다면 무슨 상대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내 탓으로 돌리고 지극하게 근본자리에 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없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참회를 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렇게 해서 녹이는 거지 끊는 게 아닙니다. 끊는 거는 다시 이어질 수 있지만 녹이는 것은 돌이 아니게 녹이는 까닭에 아주 해말갛게 녹는 겁니다.

그렇듯 인연에 따라 만난 것일 뿐인데도 부모라는 생각, 형제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저런 기대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 또한 자기의 소견이지 상대방 본래의 일은 아닙니다. 내게 있는 그 기대 때문에 실망도 하고 원망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마저도 그 자리에 놓으세요. 그래야 형제라는 집착, 부모라는 생각에서도 한 발짝 벗어나 편안하게 대하게 됩니다. 높고 낮음을 다 둘로 보지 않고 일체를 다 놓고 사는 사람, 여여하게 그냥 놓고 갈 뿐이고 들을 뿐이고 볼 뿐이다 하는 그런 사람한테 열쇠는 맡겨집니다. 그러니 그런 괴로운 생각들이 이 공부를 해나가는 데에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지극하게 관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만물 모든 생명이**
**내 한 생각에 움직이는**
**마음의 묘법 터득하기를…**

## 바깥의 요인에 대해서…

**문**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깥의 요인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외부의 자극, 대개 이것이 매개체가 되어 마음은 폭발하게 되는데 왜 부처님은 그것에 대허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문득 질문을 드리다 보니 답까지 떠오르는 것 같지만 아직은 설익은 수박입니다. 외부는 외부가 아니다, 종국에는 외부마저 사라져 버린다. 그것이 바로 진아입니까. 내가 알았다고 하는 것도 없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에 관해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 불교라고 할 때 '불(佛)'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요, '교(敎)'는 우리가 지금 서로 말하고 배우고 또 화목하게 가정을 이끌어 가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 한 포기도 생명은 똑같으니 불교 아닌 게 없고, 모든 부모 자식지간 또는 형제지간도 다 똑같습니다. 벌레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고 이 세상만사의 살림살이가 우리의 근본 마음에 가설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물질세계의 50%만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부서지고 깨지고, 변하고 없어지고,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이라고 하는 이치입니다. 사람 살아나가는 도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직결되어 있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나 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 없는 불 바퀴가 돌아가고 별성들이 반짝거리며 돌아가는데 우리 몸 속에도 조그마한 별들이, 그것들을 생명들이라고도 하고 모습들이라고도 하고 의식이라고도 하죠. 그 의식들이 전부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몸은 금방 쓰러질 겁니다. 그야말로 송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식들은 어디서 생겼나? 인과성으로 온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살던 인과, 즉 말하자면 악과 선이 전부 여러분 속에 있으니 여러분이 때에 따라서는 화가 치밀기도 하고 타의에서 들어오는 유전성이나 세균성, 영계성, 업보성, 인과성 모든 것이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전부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것을 본다면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것이요, 지금 행동하고 가는 것을 가만히 본다면 미래가 어떻게 올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시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악과 선은 뭉쳐져 있어서 그것을 고 · 집 · 멸 · 도 사제법에서는 고(苦)덩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덩어리를 누가 만들었나 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서 짊어지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공생 공용 공심 공체 공식화하고 조화를 이루고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라고 유별나게 붙일 것이 있겠습니까? 다같이 말했고 다같이 생각하고 다같이 행동한 것인데요, 거기에 무슨 나가 따로이 붙겠습니까? 혼자 짊어졌다고 한다면 그냥 혼자 나타나는 거죠, 말도 할 수 없이 고통스럽게 말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고 붙이는 생각을 바꿔보세요. '더불어 같이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가는 것이, 마음은 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자체가 모두 발자취를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자취마다 없어집니다. 모든 게 공해서, 말을 했으면 과거로 금방 금방 들어갑니다. 생각 한번 잘하면 구덩이에서 빼낼 수도 있고, 생각 한번 못하면 구덩이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마음만 말씀하시고 바깥의 것은 말씀 안하신 것이 아니며,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공심에서 한 생각으로써 놨다면, 합이 없이 놨다면, 바로 그것이 우주 전체가 먹고도 콩 한 조각이 되 남아서 여러분이 먹게 되고도 되 남고 또 먹고드 되 남는 그런 도리를 마음 하나로써 설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천지만물 모든 생명이 내 몸 아님이 없어서 모든 것이 내 한생각에 모두 움직이는 이 마음의 묘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분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 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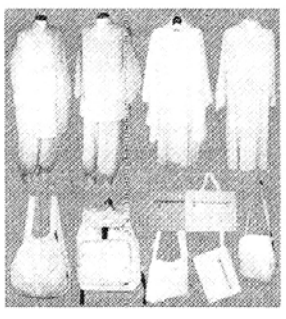
특허

BBS 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현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 0246178호)

**승복 • 법복 • 잠옷 • 바랑 판매 안내**

불교계와 저희 기원섬유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고급모직 (특징 - 통풍 잘됨, 가볍고 구김없음,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70,000) (동방바지 : ₩160,000) (두루막 : ₩140,000)
2. 쿨맥스 (특징 - 품질 가장 우수함, 수분 발산율이 빠름, 구김없고 아주 가벼움, 물세탁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80,000) (동방바지 : ₩170,000) (두루막 : ₩150,000)
3. 특수직 (특징 - 제일 가볍고 시원함,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40,000) (동방바지 : ₩130,000) (두루막 : ₩110,000)
4. 아포텍스 (특징 - 몸에 붙지 않으며 까칠함,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60,000) (동방바지 : ₩150,000) (두루막 : ₩130,000)
5. 광목 (특징 - 순수한국산, 손염색, 멋을 가진 승복)
(적삼, 바지, 조끼 : ₩170,000) (동방바지 : ₩160,000) (두루막 : ₩130,000)
6. 장삼 (조계종, 태고종) - 춘추, 하절기(가사도 주문 받습니다.)
(고급모직 : ₩220,000) (특수직 : ₩200,000)
7. 셔츠 (차이나, 라운드) : 가볍고 시원하며 물세탁 가능 : ₩30,000)
8. 걸망, 바랑, 나들이가방, 손가방, 보조가방
9. 가볍고 예쁜 법복(회색, 밤색) : 조끼 바지 : ₩65,000

**하절기 시원하게 보내실수 있게 저희 기원섬유가 책임지겠습니다.**

스님께 가사불사 보시하면 십선(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재팔란을 소멸합니다.

◒ 잠옷(항균처리) - 남, 여(상, 하) : ₩65,000
특징 : 1. 특허청에 의장 등록된 옴자, 연꽃무늬가 은은하게 들어있음(제0246178호)
2. 항균처리된 제품
항균처리란? 각종 박테리아와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시켜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청결한 몸상태를 유지시켜주는 특수제품 임
3. 고급순면으로 촉감이 아주 뛰어남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원섬유 본 사 :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봉영 B/D 302호
TEL : (053)764-4114 H·P : 011-9850-4400
지역 판매점 모집



고차원치유에너지 활용법 전수! 이제 전세계 비만인의 고민은 사라진다!!

**비만완전탈출!! 지도자모집**

세계최초 부산에서 전격 지도자 양성. 질병으로 변형된 DNA를 정상적인 DNA로 복원시키는 체계화된 학문교육, 약이나 氣등의 도움이 없다.

대 상
◆ 가족의 난치병 간호에 고통을 겪고 계신분
◆ 해외이민 희망자
◆ 先見之明의 지혜를 가지신 남 · 녀
◆ 인기폭팔 비만 및 피부미용 샵 운영 예정자

교육과정
◆ 비만 및 난치병 조정법 6일간의 속효 조정법으로 최고의 고등본능 방법술 전수
◆ 심이종 지능과 심이종 의식 구조학의 고난도 책응함방법 전수
◆ 부작용이나 요요현상이 없다

**본학문을 전수받고 난후 당신은 아래와 같은 능력자가 된다!**

1. 배운대로 하면된다
(살찌게 하는 DNA를 교정, 마르게 하는 DNA를 교정)
2. 피부가 더욱 아름다워진다
3. 상대를 하루 1~2시간 6일을 조정해주면 된다
4. 6일 이후 부터 비만 당사자는 자율적으로 자기본래의 표준골격을 되찾기 위하여 불필요한 체지방을 몸밖으로 자동배출 하게 된다. 부분비만은 물론 제아무리 거구의 비만인이라하더라도 옛날에 입었던 옷을 꺼내입게 된다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다! 놀랍다! 과연신기하다! 라고들 하나 믿기 어려운 기적같은 현실임)**
5. 감기도 암도 같은 맥락에서 원상회복된다
6. 난치의 비정상 세포를 몸밖으로 배출시키고 복원시키는 비전의 학문을 전수받으시기 바람

※ 종교와는 무관하며 이법을 세상에 보급할 때가 되었으므로 지도자를 양성하며 인연닿는분 필히배워두시길 배워두면 성공한다!

문의처 부산시 진구 전포 2동 608-1
051) 805-3568~9 019-831-8351

高次元治癒에너지 人體適用硏究學會



**깨달음은 이루어진다**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관념과 이론이 아닌 구체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체계적인 수련 방법입니다. 그 성취와 결과는 매우 분명합니다.

- 일상 피든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부족함 없이 사는 지혜를 얻고자 할 때
-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지 못해 방황할 때
- 무상 무념과 삼매를 언제나 이루고자 할 때
- 생사의 두려움에서 초월하고자 할 때
- 영적 장애에서 벗어나 스스로 해결 확인하고 싶을 때
- 근심, 두려움, 좌절, 미움, 원망과 온갖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수련과정 -**

| | |
|---|---|
| 本 性 | 참마음, 無心, 無我, 無分別智, 죄책감 소멸, 實體없음, 時空없음, |
| 無碍法界 | 不空, 眞空妙有, 寂照現前, 無分別後得智 無上覺, 無碍自在, 업장소멸, 마음의 휴식 영적문제해결 |
| 無上覺 | 거듭남의 비결, 삶의 기쁨 원하는대로 이루는 법칙 |

깨닫기 위한 수행과 깨친 후 지속적 유지를 위한 수행 중 어느 것이 지혜로운가?

총마음 禪林院
033)435-3166 435-6166